



# 가스산업의 안전주역

## 한국가스기술공업(주)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대회가 열리고 있고, 또한 지방선거 유세로 열띤거리를 지나 안전 대회, 안전선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업(주)를 찾았다.

한국가스기술공업(이하 가스기공)은 1993년 5월에 설립되어 현재 3본부 5처 2실 9개사업소 총 8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천연가스생산 및 공급설비의 유지보수 및 개·보수공사와 가스설비 건설업, ESCO사업 및 설비의 진단 등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Intelligent Pigging 기술을 이용한 지하매설배관내의 이상유무점검과 배관내에 가스가 흐르는 상태에서 배관보수 및 지관을 설치할 수 있는 Hot Tapping 기술, 그리고 지하매설배관의 피복 상태 이상유무를 탐측할 수 있는 기술은 국내 유일의 특화된 핵심기술이다. 또한, 환경월드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천연가스버스의 확대 보급에 따라 무공해 천연가스를 주입하는 CNG 충전소 및 관련시설을 20여개 버스차고지에 일괄 시공하여 환경 친화적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Clean 환경에 이바지하고 있다.

### 안전보건·환경 강령 실천으로 무재해 달성

가스기공의 안전경영에 대해 민병군 사장은 “생명,

자원 그리고 환경의 보호”를 존재이념으로 “가스산업의 주역으로서 가스설비를 안전하게 정비하여 가스재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본인과 동료의 안전, 설비안전, 지역사회 안전은 개개인의 책임이자 전체의 책임임을 확인한다”라는 안전경영 방침을 전직원에게 숙지시켜 안전의식을 함양하



민병군 사장

고 있다. 또한 임승엽 안전품질실장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가스기공은 안전 경영 방침에 따라 매년 매출액 대비 약 6% 이상 안전관리비를 투자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존중사상을 실천하는 최고 경영자의 의지와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자율안전 경영을 철



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며 이를 위해 안전, 보건, 환경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안전 Catchphrase를 설정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실천하는 안전 보건 환경”을 목표로 하여 실천하고 있다.

가스기공이 설립된 그이듬해인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가스폭발사고는 가스에 대한 안전의식이 완전히 바뀐 계기가 되었으며 안전관리 분야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현재 평택기지사업소(99. 10. 16)를 시발로 경인사업소(00. 11. 5), 충청사업소(01. 11. 18), 호남사업소(01. 12. 2), 인천기지사업소(02. 1. 25)가 무재해 5배를 이미 달성하였으며, 무재해 10배 목표를 향하여 순항을 지속하고 있는 중으로 현재 전체 9개 사업장 중에서 여섯번째로 경북사업소가 금년 8월 29일 무재해 5배를 달성한다.

안전보건 실적에 대해 정해근 인천기지사업소장은 “누구하나의 노력이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실천의 바탕에서 전 임직원이 합심할 때, 즉 노사가 기본 원칙의 바탕에서 자율안전의 엔진을 작동하여 오케스트라와 같은 화음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우리가 지향하는 무재해가 지

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라고 한다.

### 다양한 안전활동 제도로 전사업소 무재해

가스기공은 자체적으로 자율 안전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정별, 위험발생 요인별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대책을 실천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하여 제도화 함으로써 숙련자에서부터 미숙련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설비상의 위해요소 또는 개선해야 할 제안 그리고 아차사고사례를 사업소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발표하고 있다. 또한 년 1회 전국의 가스관련 회사를 초청하여 직원들이 실제로 경험한 아차사고 사례와 정비 사례 발표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자율안전시스템이 정착되어감에 따라 초기에 운영 하였던 피동적인 안전별점제도를 폐지하게 되었다. 상황등급에 따라 즉시 긴급출동 될 수 있도록 제도와 조직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었고 가상사고 유형별로 시나리오를 작성,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고압, 초저온(-165℃)이면서 무색, 무취의 가스로서 모든 공정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술과 안전 그리

고 실천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정비절차에 따라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비별, 제작사별 설비에 대한 정비절차서 456종을 자체적으로 제작 완비하고 있으며, 위험도에 따라 **TodBoxMeeting**은 물론 작업허가서를 발급 받아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과장급이상 관리감독자가 월 2회이상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는 본사 임원급이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여 실질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가스기공은 기술직 직원의 97%가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 2자격증도 현재 85%의 높은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인재개발 육성을 위하여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올해는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 안전·보건·환경 관리시스템인 **EHSMS(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OHSAS 18001**인증을 취득하여 안전, 품질, 보건, 환경규정을 하나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그 외에 안전경영대상(00. 12월)과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인증(99. 7~00. 5) 및 환경관리우수기업 표창(00. 6) 등 많은 인증과 표창을 수상한바 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대외 건설공사 등 확대되는 사업의 안전관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올해는 각 공사별로 안전관리 요령에 대한 교안을 개발하여 각 현장에 배포하고, 위험에 따른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써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끝으로 가스기공은 명실상부한 세계 에너지 설비 기술서비스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확신 하며 취재를 마친다.

가스기공의 밝은 미래와 무재해 10배, 20배 달성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취재: 이윤호 · 사진: 최종덕)